

## Google 그룹스

## YES

Jeong Cheol

2001. 4. 23 오후 5:56

게시된 그룹: han.arts.music.progressive

[조영래, cyn...@hitel.net, 94.12]

Fragile ★★★☆

Close to the Edge ★★★☆

Relayer ★★★☆

Going for the One ★★★

90125 ★☆

Anderson, Bruford, Wakeman &amp; Howe★★

Yes는 너무나도 유명한 프로그레시브 록 그룹이다. Pink Floyd, King Crimson, Genesis, EL&P등과 더불어 Yes는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레시브 록 그룹으로 불린다. 이들의 대중적 인기, 오랜 활동 상황,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록 신에 미친 영향력등은 구태여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다. 이들의 4번째 앨범 'Fragile'은 이들에게 첫 번째 상업적 인기를 안겨준 작품이며, Yes 사운드의 완성을 이룬 앨범으로 보통 평가받고 있다. 당시의 라인업은 호화롭다고 할 수 밖에 없는 Jon Anderson - Chris Squire - Steve Howe - Rick Wakeman - Bill Bruford로 이 라인업으로 다음 앨범 'Close to the Edge'까지 Yes의 최고 전성기를 이뤄내게 된다. 'Fragile'은 멤버 각각의 취향을 뚜렷이 두러낸 소품들과 몇 곡의 중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품들은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흥미가 가지않는 곡들이지만, 앨범의 마지막에 수록된 Heart of the Sunrise는 대단한 곡이다. Yes의 곡중 가장 박력있는 곡이라고 생각되며, 히트곡 Roundabout과 함께 앨범을 대표할 만한곡이다. Close to the Edge는 Fragile에 비해서 대작취향으로 흐른 앨범으로 이후 Relayer까지 이런 대작 취향은 계속된다. Yes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낸 하모니와 깔끔한 연주가 두드러지는 앨범으로 이 한장으로 Yes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Relayer는 Rick Wakeman대신 참가한 Patrick Moraz의 영향이 두드러진 앨범으로 다소 장황하고 현란스런 감을 주는 앨범이다. 어느 정도의 정리정돈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Patrick Moraz의 키보드 연주는 Wakeman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Yes의 사운드와 잘 어울리고 있다고 생각된다. Going for the One은 다시 Wakeman이 가담해서 만들어진 다소 스트레이트한 성향의 앨범이다. 이전작 Relayer와 Tales from Topographic Ocean이 현학의 극단을 추구했다면 Going for the One부터 Yes의 사운드는 다소 단순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다. 그래도 후반기처럼 마냥 단순 명료하진 않기 때문에 Yes의 현란한 테크니컬 록을 즐기는 사람으로선 이 앨범도 들을만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90125는 Yes의 회심의 재기작으로 넘버 원 곡 Owner of a Loney Heart가 수록되어 있긴 하지만, 지나치게 재기에 신경쓴듯한 상업적인 냄새가 거슬리는 앨범이다. 초창기 Yes팬들에게 한없는 실망을 안겨주리라고 생각된다. 80년대 후반 Anderson, Bruford, Wakeman & Howe라는 이름으로 다시 모인 이들은 - 당시 이들이 이런 이름을 쓸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Chris Squire가 고집스럽게도(?) Yes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이다. - 동명 타이틀의 앨범을 발표하지만, 뚜렷한 목적의식 없이 장황하고 부풀려진 사운드만으로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엔 다소 힘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몇몇 곡에서 새로운 리듬에 대한 탐구등이 흥미롭긴 하지만전체적으로 이도 저도 아닌, 열치기 앨범이 되고 만 듯한 느낌을 준다.

[오찬익, oo...@hitel.net, 93.5]

YES

앞으로 10여회에 걸쳐서 록의 르네상스시대를 빛내었던 프로그레시브록그룹인 Yes의 앨범들에 대한 Review를 할까합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로 그들이 1969년에 발표한 그들의 공식 데뷔앨범인 'Yes'를 살펴보기로 하죠.

흔히들 평하길 아니,필자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볼때 그들은 E.L.P와 더불어 가장뛰어난 연주력을 소유했던 프로그레시브 록그룹중 하나가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예스가 배출했던 뮤지션들만 보더라도 키보드에 릭 웨이크만 토니 케이,그리고 패트릭 모라즈,제프리 다운즈등 그야말로 프로그레시브록에 핵심에 위치해 있는 뮤지션들이라고 할수있죠. 그밖에도 기타에 스티브 하우,베이스에 크리스 스콰이어, 기교파 드럼머인 빌 브러포드와 알란 화이트 그리고 흔히 천상의 목소리라 불리우는 보컬의 존 앤더슨등이 예스를 거쳐갔거나 현재

에도 활동하는 뛰어난 뮤지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작은 드럼에 빌 브러포드, 베이스에 크리스 스콰이어, 기타에 피터 뱅크스, 오르간에 토니 케이 그리고 밴드의 리더이자 보컬인 존 앤더슨의 라인업으로 공개되었습니다. 피터 뱅크스나 토니 케이 등은 이후에 활동하게 되는 멤버들에 비하여 비교적 이름이 덜 알려진 뮤지션들이긴 하지만 그들이 몸담았던 초기에도 예스의 연주력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음을 본작을 통해서 간파할 수 있습니다. 수록곡들을 보면 ( cd 수록순서입니다. )

1. Beyond and before
2. I see you
3. Yesterday and today
4. Looking around
5. Harold land
6. Every little thing
7. Sweetness
8. Survival

오르간의 사용과 군데군데 배치된 오케스트레이션 인하여 그들의 후기작을 먼저 접한 분들에게는 다소 이질감이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기교적인 면에 있어선 스티브 하우스나 릭 웨이크만이 앞서는 것은 사실이나 필자의 생각으로 피터 뱅크스와 토니 케이이 참가했던 초기의 사운드가 록적인 필이나 파워에 있어서는 앞섰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본작은 아직은 미숙하지만 여러면에서 슈퍼그룹으로서의 예스의 전설을 예고한 훌륭한 작품집이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찬익, oo...@hitel.net, 93.5]

#### YES Time and a word

본작은 Yes의 2집으로 1970년에 발표되었는데 발표당시에는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새롭게 재 평가되면서 Yes의 명반중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필자가 생각하기로도 본작은 그들의 모든 작품집중 거의 최상의 평가를 받아내기에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  
 본작의 수록곡들을 보면

#### side A

- 1.No opportunity necessary, no experience needed
- 2.Then
- 3.Everydays
- 4.Sweet dreams

#### side B

- 1.The prophet
- 2.Clear days
- 3.Astral traveller
- 4.Time and a word

그리고 멤버는 변동이 없다.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의 사용도 여전히 있다. 그래서인지 1집의 분위기가 그대로 연출되고 있는데 연주력과 곡의 구성면에 있어서는 1집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첫곡인 "No opportunity necessary, no experience needed"는 이러한 면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 인트로에서 펼쳐지는 클래식한 전주에 바로 이어지는 변화무쌍한 연주패턴이 그 좋은 예일 것이다. 특히 스콰이어와 브러포드의 탄탄한 리듬파트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케이의 오르간연주는 호쾌한 스트링파트와 더불어 그야말로 장관을 이뤄낸다.

이러한 점은 두번째곡인 "Then"과 명곡 "Everydays"도 마찬가지

인데 "Then"에서 보여지는 스콰이어의 베이스와 브러포드의 드럼의 절묘한 조화는 E.L.P에 있어서 파머와 에머슨의 경합을 연상케 할 정도로 격렬하고 뛰어난 것이다. 이어지는 명곡 "Everydays"에서 펼쳐지는 변화무쌍한 리듬패턴과 강약완급의 조절은 그들의 사운드가 연주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구성에서도 진일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쾌거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긴장감은 다음곡인 "Sweet dreams"로 이어지는데 가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연주에 자신감을 느낄 수 있다.

뒷면으로 넘어가면 스트링파트를 절제하고 다소 하드한 맛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बैं크스의 기타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면은 이후 다음 작품집에서부터 펼쳐질 그들 특유의 사운드로 가기 이전의 과도기적인 특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첫곡인 "The prophet"는 이러한 면이 잘 나타나는 곡이라고 할 수 있다. 인트로부터 बैं크스의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기타연주로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피날레에서는 다소 과격하느 느낌마저 받는다. 이어지는 "Clear days"는 전혀 상반된 분위기의 클래식 소품으로 피아노와 스트링 파트만으로 이루어진 이색적인 곡이다.

이어지는 "Astral traveller"는 군데군데 보이는 아이디어를 제외하곤 다소 평이한 흐름의 곡이다. 그리고 대미를 장식하는 "Time and a word"는 웅장하고 쉽게 와닿는 곡으로 즐겁게 감상을 마칠 수 있도록 해준다.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에 삽입된 스트링파트로 인하여 경쾌한 느낌을 주며 대체로 악상이 단순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을 주게 하는 것 같다. 어쨌든 본작을 끝으로 스트링 파트의 삽입은 사라져가지만 오케스트레이션이 가미됨으로 해서 본작은 독특한 위치에 서게 되고 그들의 초기를 대표하는 명반으로 자리잡게 되는데 손색이 없는 듯 하다.

이쯤해서 잠깐 가사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본작에 실린 곡들의 가사를 살펴보면 그들의 세계관이 매우 밝고 낙천적임을 감지할 수 있다. 그들은 모든 이들이 느끼는 현실의 고통과 괴로움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인식으로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그것은 사랑과 꿈이다. 특히 사랑이라는 단어는 거의 전곡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단지 연인들간이나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처럼 특정한 대상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전 존재에 대한 사랑이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야 한다고 말한다(To wake up and be).

순수한 사랑이 점차 사라져가고 그나마 있더라도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사랑 아닌 사랑이 판을 치는 우리네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판단은 지극히 옳았다는 생각이 든다.

많은 분들이 그들의 음악과 세계관에 동참하길 바라며 이만 글을 접는다.

There's a time and the time is now and it's right for me,  
It's right for me, and the time is now.  
there's a word and the word is love and it's right for me,  
It's right for me and the word is love.

[오찬익, oo...@hitel.net, 93.6]

YES The Yes Album

본작은 그들의 3집으로서 1,2집에서 나타났던 시행착오적인 사운드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완숙한 연주와 구성을 갖추고 있는 명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예스 팬들은 본작에서부터 진정한 예스의 사운드가 시작되었다고 보더군요.

본작에서부터 기타리스트가 피터 बैं크스에서 스티브 하우로 교체되는데 첫곡인 'Yours is no disgrace'에서부터 그의 뛰어난 실력이 유감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첫곡인 이 곡만 보더라도 그들의 사운드가 얼마나 진보했는가를 한눈에 알 수 있죠. 그리고 특이할만한 사실은 본작에서부터 나타난 Moog Synthesizer의 사용입니다. 그래서인지 사운드가 좀 더 예리해진 듯한 느낌을 줍니다.

둘째곡인 'The Clap'은 하우의 뛰어난 어쿠스틱 기타 솜씨를 만끽할 수 있는 곡으로 본작의 재미요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세째곡은 3부작인 'Starship Trooper'로서 본작의 백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후반부를 휘감는 케이의 웅장한 오르간연주와 하우의 블루스적인 감흥이 솟구치는 끈끈한 기타프레이즈는 압권을 이뤄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에서도 대단히 신비적인 그리고 난해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면으로 넘어가면 물방울이 튀는 듯한 하우의 깔끔하고 정교한 기타연주에 케이의 경쾌한 피아노 연주가 곁들여진 'I've seen all good people'이 첫곡을 담겨 있습니다. 이곡은 후에 라이브 앨범인 'Yessongs'에 다시 재현되기도 하죠. 이어 평범한 듯 하지만 존 앤더슨의 보이스트리가 돋보이는 'A venture'가 이어지고 다시 그들의 막강한!! 연주력이 빛나는 'Perpetual change'가 대미를 장식합니다. 제목이 말하듯 그들의 실험적인 시도는 영원하리라는 암시와 함께.....

아트록 매니어들에 범하기 쉬운 가장 쉬운 오류중 하나가 구하기 어려운 음반수집에 몰두한채 구하기 쉽지만 훨씬 뛰어난 앨범을 지나쳐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가판대를 떠날 줄 모르는 본작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더군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아트록 팬들에게 본작의 필청을 권해드리며 아울러 초보자님들에게 구하기 쉬운 음반부터 들으시길 적극 권해드립니다

[오찬익, oo...@hitel.net, 93.7]

## YES Fragile

본작은 Yes의 4집으로 71년에 공개된 작품집입니다. 본작에는 그간 중후한 오르간 사운드를 들려주던 토니 케이이 탈퇴하고 새로운 키보디스트로 키스에머슨이 필적할 만한 뛰어난 테크니션인 릭 웨이크만이 참여합니다. 그래서인지 보다 키보드의 비중이 늘어난 느낌이며 특별히 "Cans and Brahms"라는 곡에서 릭 웨이크만은 자신의 탁월한 키보드 솜씨를 과시하기도 합니다. 우선 수록곡을 살펴보기로 하죠.

### side 1

- 1.Roundabout
- 2.Cans and Brahms
- 3.We have heaven
- 4.South side of the sky

### side 2

- 1.Five per cent for nothing
- 2.Long distance runaround
- 3.Fish
- 4.Mood for a day
- 5.Heart of the sunrise

본작은 특이하게도 멤버 각자가 작곡하고 솔로로 직접 연주한 곡들을 한 곡씩 담고 있습니다. 우선 앞서 이야기했던 Cans and Brahms는 릭 웨이크만이 키보드 솔로 연주를 Five per cent for nothing에서는 브러포드의 퍼커션 솔로를 We have heaven 에서는 앤더슨의 보컬솔로를 들을 수 있으며 The fish에서는 스콧의 베이스 솜씨를 들을 수 있고 Mood for a day에서는 정갈한 하우의 어쿠스틱 기타솜씨를 들을 수 있습니다. 본작에는 이러한 멤버들의 화려한 솔로 연주를 들을 수 있다는 잇점이외에도 명곡인 Roundabout 과 Heart of the sunrise 등이 가세함으로써 그들 최고의 작품집이라는 찬사를 획득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하우의 어쿠스틱 기타의 음향의 울림으로 시작되는 Roundabout은 보다 진보한 그들의 연주와 작곡솜씨가 빛을 발하는 그들의 초기 히트곡이며 Heart of the sunrise는 필자가 생각하기로는 그들 최고의 명곡중 하나로 스카이어와 브러포드로 연결되는 Yes의 리듬파트가 얼마나 탄탄한가를 보여주는 좋은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곡에서 보여준 멤버들의 혼연일체가 된 연주는 E.L.P.에 필적할 만한 유일무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4인조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앞선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그외에 South side of the sky 와 Long distance runaround 등의 곡들도 Yes의 뛰어난 역량을 살펴볼 수 있는 훌륭한 곡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면에서 본작은 예스의 최전성기를 대표하는 뛰어난 명작이라고 할 만 하며 그러한 이유에서 Yes 를 처음으로 접하고자 하는 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은 작품집입니다.

[유영재, espi...@hitel.net, 94.11]

### YES Fragile

이번엔 Yes의 앨범을 들고 좀 떠벌려 볼까나... 그룹 Yes...! 분명히 프로그레시브 록계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거물 그룹이다. 흔히 프로그레시브 5대 명그룹 하면 Pink Floyd, King Crimson, ELP, Genesis, 그리고 Yes를 거론하지 않던 가...? 사실 5대가 어찌구 6대가 어찌구 양대...어찌구 하는 말은 언제 누구로부터 시작된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암튼 흔히 다섯그룹을 꼽으려면 위의 그룹들을 꼽게 된다. 사실 내가 위의 다섯 그룹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거의 같은 시기였는데, 핑크 플로이드를 제외한 나머지 네 그룹은 프로그레시브 그룹으로 서가 아닌 팝그룹으로서 처음 접하게 되었다. 킹크림슨의 경우 'Epitaph'는 그 당시에도 라디오 방송을 자주 탕 기에 그들의 음악을 알고 있었지만 난 그때 이 곡이 프로그레시브 록인줄도 몰랐다. 더군다나 난 당시 'Come Dancing'이란 댄스뮤직(?)으로 재기한 킹크림슨과 이 킹 크림슨이 누가누군지 막 헛갈렸을 때이긴... ELP의 곡 'C'est La Vie' 역시 라디오 방송에 자주 나오는 올디스 벅 구디스 였다. Genesis는 잡지 등을 통해 이름만 알고 있었는데 10년전 봄인가...썸에 필 콜린스가 리드 보컬을 맡은 'That's All'이란 곡이 히트를 하면서 처음 접 하게 되었다. Yes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름만 알고 있던 그룹 Yes를 처음 접하게 된건 다음 아닌 'Owner Of Lonely Heart'을 통해서 였다. 그 때 한창 Paul McCartney와 Michael Jackson 이 듀엣으로 부른 'Say Say Say'란 곡이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빌보드 차트 1위에서 내려올 줄을 모르고 있었는데 어 디서 이름도 유 치한 Yes라는 그룹이 엉금엉금 차트를 기어 올라오더니 급기야는 6주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던 폴 매카 트니 와 마이클 잭슨의 곡을 끌어내리고 1위에 올라선 것이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라디오 DJ들의 반응이 아직 도 기억난다. "이야~~ 오래 살고 볼 일 입니다. 세상에 그룹 Yes가 설마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르리라 고 그 누가 짐작이나 했겠 습니까...?" "Yes가 차트 1위에도 다 올라보는군요... 그들의 팬들은 무척 좋아할 일 이지만 과연 기존의 팬들이 이번 그들의 사운드를 좋아할 것인지는 의심스럽군요...음악이 너무 달라졌 죠...?" "이번 Yes의 작품은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며 인기를 얻 고 있지만 과거 그들의 팬들로부터는 엄청난 실망감 을 안겨 다 주었습니다. 아마 이번 Yes의 음악적 변신은 그룹 Asia의 성공에 자극을 받은게 아닐까요?"

암튼 매스컴이 떠들썩했었다. 그런데 매스컴에서 사운드가 변했다 어쩐다 떠들어대는데 난 이들이 어떻게 사운 드가 변 한건지 예전에 대체 어떤 음악을 들려줬었는데 그랬는지 알 지도 못했고 알고 하지도 않았었다. 그냥 그러려니... 거 기다가 난 이 곡이 너무나 싫었다. 특히 신경질적으로 부르는 보컬리스트의 목소리가 내 귀에 무 척 거슬렸다. 물론 그 때 Yes의 보컬리스트가 같은 시기에 내가 좋아하던 Jon & Vangelis의 'Polonaise'에서 의 존 앤더슨인지 알리가 있었 겠나.... 나중에 동일 인물임을 알고 적잖이 놀라긴 했지만... 어쩐든 Yes와의 만 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런데 지금도 나는 존 앤더슨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평론가들은 '천상의 목소리'라는 등 비행기를 막 태우고 있 지만 난 그의 목소리를 단지 '천하의 목소리'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Yes에서의 그의 보컬은 그저 그런 데...남들이 좋다! 좋다!하니까 오히려 더 거부감이 생길 때도 있다. 차라리 Yes 재적 당시 보다 Vangelis와 함 께한 작품에서 그의 보컬은 더 들을만한 것 같다. 사운드가 변모하기 이전의 작품으로는 국내에 유일하게 라 이 센스 음반으로 선보이기도 했던 그들의 4집 [Fragile]은 Yes의 최강의 라인업인 2기 멤버 ( 존 앤더슨-빌 브루 포드-스티브 하우-크리스 스카이어-릭 웨이크먼 )의 진용을 갖춘 후 내놓은 첫작품인 동시에, 그들의 음악적 전 성기를 알리는 첫 신호탄이기도 했다. 아울러 유명한 재킷 일러스트레이터 인 Roger Dean이 이 앨범의 커버를 담당해주기도 했다. (하 지만 난 이 앨범 커버도 그저 그렇다...) [Fragile]은 음악적으로 뿐만 아니라 상업적으 로도 큰 성 공을 안겨다 주었는데, 앨범은 전미 차트 당당 4위에 올라섰 고 'Roundabout'을 싱글로 컷트시켜 차트 13위까지 랭크시 키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또한 인상적인 것은 이 앨범에는 특이하게 각 멤버의 기량이 발 휘된 곡을 한 곡씩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릭 웨이크먼의 건반 독주인 'Cans And Brahms'는 브람스의 교향 곡을 편곡한 곡이며 존 앤더슨의 'We Have Heaven'은 그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믹스한 곡으로서 별다른 특 징은 없는 짤막한 곡이다. 그리고 릭 웨이크먼의 익살맞은 건반 연주를 백으로 빌 브루포드의 드럼 연타가 주를 이루는 'Five Percent For Nothing'과 스티브 하우의 상당히 듣기 좋은 어쿠스틱 기타 연주곡 'Mood For A Day'를 비롯하여 크리스 스카이어의 'The Fish'등이 실려있다. 'The Fish'는 단순한 리듬 전개 속에서 진동

하는 크리스 스콰이어의 뛰어난 베이스 솜씨를 들을 수 있는 곡인데, 곡분위기 때문 인지 단순한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듣는 이로 하여금 묘한 신 비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마력을 지닌 곡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앨범의 노른자는 앨범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두곡의 중편 'Roundabout' 과 'Heart Of The Sunrise'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곡만으로도 이 앨범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앨범의 포문을 여는 곡이자 그들의 가장 대표적인 곡인 'Roundabout'은 경쾌한 리듬을 바탕으로 한 역동적인 전개 방식이 프로그레시브 록 팬이 아니더라도 쉽게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이 곡에서 그들의 트레이드 마크인 간결하면서도 치밀하게 짜여진 연주가 빛을 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릭 웨이크먼과 크리스 스콰이어의 기량이 발군의 실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앨범의 마지막에 담겨있는 'Heart Of The Sunrise'는 한마디로 지극히 Progressive한 작품이다. 특히 5인의 멤버가 창출해내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섬세한 연주는 역시 고개를 절로 끄덕이게 만든다. 이색적으로 릭 웨이크먼의 멜로트론 음향도 들을 수 있기도 한 곡으로서, 전광석화 와 같이 펼쳐지는 기타와 드럼과 베이스의 합주는 Yes 사운드의 결정체를 보여주는 듯 하다. 특히 사운드의 강약의 유기적인 결합으로서 듣는 이로 하여금 10여분에 이르는 시간 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만든다. 사실 위에서 언급한 다섯 그룹중에서 전체 멤버의 연주력을 따지고 들자면 2기 Yes를 능가하는 팀은 없다고 본다. 5인의 멤버가 모두 각 부문에서 내노라하는 거물들 아닌가...! 단 한명도 실력과 명성이 뒤쳐지지 않는 명연주자들이 모여서 이루어낸 명음반이 바로 이 [Fragile]이고,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인 명연이 'Heart Of The Sunrise'이다. 그리고 이러한 명연은 다음 앨범인 [Close To The Edge]에 이르러 절정을 이루게 된다. 이들의 5집이며 가장 뛰어난 앨범인 [Close To The Edge]는 다음 기회에 언급하기로 하겠다. 참고로 Yes의 본 [Fragile] 앨범은 국내에서는 예전에 오 아시스 레코드사에서 발매되었다가 얼마전에 WEA에서 다시 재발매 되었다.

[오찬익, oo...@hitel.net, 93.7]

YES Close to the edge

73년에 Yes의 공식 3집으로 공개된 본작은 흔히 그들의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힙니다. 그렇게 손꼽히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의 연주력이 정점에 이르렀다는 점과 대곡위주의 뛰어난 곡 구성에서 그러한 이유를 찾아 볼 수 있겠지요.

본작에는 총 3곡의 대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면에는 흡사 교향곡의 형식처럼 4악장으로 구성된 타이틀곡 "Close to the edge"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곡의 압권은 릭 웨이크먼의 장엄한 오르간이 울려 퍼지는 part 3 : I get up I get down 과 화려한 키보드 연주가 펼쳐지는 part 4 : Season of man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작들에 비하여 키보드의 비중이 늘어난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본작은 전체적으로 스페이스록적인 분위기도 많이 내포하고 있는 듯 합니다.

뒷면의 첫곡은 필자가 생각하기로 그들 최고의 명곡이라고 할 수 있는 "You & I"가 담겨져 있습니다. 총 3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이곡은 담백한 느낌을 주는 스티브 하우의 어쿠스틱 기타연주와 장엄한 느낌을 주는 릭 웨이크먼의 멜로트론이 대조를 이루며 감정의 굴곡을 이상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비적이며 난해한 내용을 담은 가사도 이 곡의 분위기를 더 한층 고조시키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곡인 "Siberian Khatru"는 Yes의 첨예한 연주력을 극명하게 나타내주는 곡으로 차후 Yes의 진로를 어렵게 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Yes의 최전성기시절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작은 Yes를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3집과 더불어서 필청의 음반이라고 생각되는군요. 혹시 앓들어 보신 분이 있다면 레코드가게마다 쌓여 있는 본작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찬익, oo...@hitel.net, 93.8]

YES Tales from topographic ocean

공식 5집이었던 'Close to the edge'를 발표한 예스는 곧이어 공식 6집으로 라이브 앨범인 'Yessongs'를 발표한다. 예스의 최고의 명반중 하나로 꼽히는 이 라이브 앨범은 스튜디오 앨범에서는 찾아 볼수 없는 즉흥성마저 가미된 뛰어난 실황이었다. 이 앨범에 수록된 곡 설명은 이미 설명한 곡들이므로 생략한다. 이듬해인 73년, 그들은 공식 7집으로 더블 앨범인 본작을 공개

한다.총 4파트로 구성된 이 작품집에서 그들은 장대한 구성에 그들만의 뛰어난 연주력을 펼치지만 왠지 산만하다는 느낌을 감출수 없는 다소 장황한 작품집이었다.하지만 요소요소를 따로 놓고 보면 그들의 순발력과 실험성이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음을 감지 하게 된다.난해한 구성속에 간간히 펼쳐지는 하우의 어쿠스틱 기타연주가 구름속에 내비치는 햇살처럼 반가운 파트 3의 한 소절과 고대의 제례의식을 연상케하는 파트 4의 중반부와 차분한 느낌의 후반부가 그것이다.

물론 뮤지션의 영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앨범의 모든 부분이 필수 불가결하게 의도된 것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앨범중의 하이라이트부분만 모아서 한장으로 압축시켰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그동안 발표되는 앨범마다 혁신적이고 새로운 구성을 선보였던 그들이었지만 본작을 기점으로 다소 매너리즘에 빠진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대부분의 명그룹들이 그러하듯 그들에게도 더 이상의 '진보'는 힘겨웠던 것 같다.다만 그동안 꾸준히 발전되어온 연주력이 그러한 점을 보상할 뿐이다.본작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은 이후의 작품들에서 더욱 더 심화되어 간다.그래서인지 처음으로 예스에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다지 권하고 싶은 작품집은 아니다.하지만 나름대로 훌륭한 연주와 실험성을 담은 서사적인 작품으로 예스의 팬들에게는 또 하나의 필청의 작품집이라는 것을 밝혀둔다.

[오찬익, oo...@hitel.net, 93.8]

YES Relayer

7집이 공개된 이후 갑자기 릭 웨이크먼이 탈퇴하여 한때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으나 곧 패트릭 모라즈라는 뛰어난 키보드리스트가 참여하여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앨범이 그들의 공식 8집으로 공개된 본작이다.

이 앨범은 7집에 이어 대곡위주의 편성으로 되어 있는데 한장으로 압축시켜 전작에 비해 훨씬 밀도있게 짜여져 있다.

A면에는 'The Gates of delirium' 한곡으로 매워져 있는데 현재 군대간 필자의 동생이 매우 좋아하던 곡이다. 대곡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치밀한 연주를 들려주고 있어 과연 예스! 라는 감탄을 하게된다.특히 갈수록 향상되는 스티브 하우의 기타솜씨가 곳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으며 새로이 가입된 패트릭 모라즈도 세계적인 키보드리스트답게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오히려 군데군데 연출되는 그의 독특한 연주로 볼때 음악적인 센스에서는 릭 웨이크먼을 능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될 정도다.이 앨범이후로 그가 탈퇴했다는 것이 무척 안타깝게 생각된다.그리고 뒷부분에 펼쳐지는 'Soon'이라는 곡(이곡은 앨범에 독립된 곡으로 명기되어 있지는 않다)에서 들을 수 있는 앤더슨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이 곡의 여운을 더욱 더 아쉽게 하고 있다.이 곡은 나중에 80년대 발표된 라이브 앨범에 다시 재현되기도 하는데 반젤리스의 앨범 'Heaven & Hell'에 수록되어 있는'So long ago,so clear'와 더불어 앤더슨이 70년대에 부른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아닐까 생각한다.

B면으로 넘어가면 앞면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첫곡 'Sound chaser'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이 그것이다.이곡은 개인적인 취향으로 인하여 본작에서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며 예스의 곡중 가장 아끼는 곡이기도 하다.특히 전편을 압도하는 스티브 하우의 섬광같은 기타 애들립과 배경에 깔린 패트릭 모라즈의 신서사이저음,그리고 변화무쌍한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는 브러포드의 드러밍은 진보음악의 극상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어지는 'To be over'는 전작에서 시도하고 있는 인도식 음악이

가미된 다소 본작에서는 평범하게 느껴지는 곡이지만 역시 뛰어난 곡임에 분명하다. 예스의 장기인 얽은 보컬하모니가 아름답다. 이곡의 제목이 암시하듯 이 앨범이후로 예스는 더 이상 본작을 능가하는 실험적인 작품집을 만들어 내지는 못한다. 물론 본작이 너무나도 뛰어난 탓에도 있지만 잦은 멤버 교체, 특히 키보디스트의 잦은 교체가 그들만의 짜임새있는 사운드 창출에 역효과를 가져왔으며 너무 개인기위주의 연주로 흘러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산만해지는 감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그들의 공식 10집인 'Tomato'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자세한 이야기는 그때가서 하겠지만 이러한 사실은 예스를 아끼는 팬의 한 사람으로 대단히 안타까운 사실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작품집은 그들의 7집과 더불어 예스의 앨범중에서는 가장 구하기 힘들다. 그러나 예스를 좋아하는 팬이나 진보적이고 난해한 사운드를 선호하는 분이라면 꼭 들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오찬익, oo...@hitel.net, 93.8]

YES      Going for the one

Yes의 공식 9집으로 공개된 본작은 1977년에 공개되었다. 잠시 탈퇴했었던 릭 웨이크먼이 다시 재가입하고 그동안 멋진 드러밍을 선보였던 빌 브러포드가 탈퇴하여 알란 화이트의 입지가 커졌다. 알란 화이트는 에릭 크랩튼, 조지 해리슨과 같이 활동하던 꽤 이름있는 뮤지션이었다.

2명의 멤버가 교체되었으니 사운드에 변화가 온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8집에서 선보였던 멤버들의 혼연일체된 연주보다는 그동안 솔로 앨범등을 발표하며 자신의 진가를 마음껏 드러내 왔던 릭 웨이크먼의 키보드 플레이가 전편을 장악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앨범에서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던 'Wonderous stories'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유려한 신디사이저음이 사운드의 핵심이 되고 있다. 환상적인 가사와 더불어 존 앤더슨의 목소리가 신디사이저음과 절묘하게 매치되어 더욱 Wonderous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그 밖에도 명곡으로 손꼽히는 'Turn of the century'에서도 릭 웨이크먼은 신디사이저와 스테인 웨이 피아노를 번갈아 연주하면서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 맥이 빠진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인 웬일인지?

아마도 키보드 외에 예스의 핵심이 되어왔던 브러포드와 스콰이어의 리듬파트가 퇴색하여 박진감이 떨어진 데에 그 원인이 있는 듯 하다. 개인적으로는 예스의 그러한 점을 높이 샀기에 예스의 이러한 변화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당연하리라.

타이틀곡인 'Going for the one'은 상당히 의외의 곡으로 로커빌리 스타일의 기타로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곧 평범한 사운드로 전환하고 만다. 연주도 단순하게 들리며 단지 계속 발전하고 있는 스티브 하우의 기타 솜씨가 들을 만한 곡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앨범에서 가장 대곡인 'Awaken'은 릭 웨이크먼의 피아노 연주로 시작되는 다소 지루한 곡이다.

다른 대 그룹들에 비해 예스는 대곡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다. 대체로 대곡에서 흔히 기대되는 몰입적인 연주나 짜임새 있는 구성보다는 보컬파트에 주력하여 연주가 산만해 지는 경향이 있다.

본작이 그들의 전성기에 발표한 작품집들에 비해 사운드면에서는 다소 불만족스러운 점들이 눈에 띄는 것도 사실이지만 가사에서는 여전히 철학적인 성찰을 담은 심오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서는 그 내용에 관해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다. 아마도 그것은 예스의 음악과

사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스스로가 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Humanoid..

야후! 메일동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후! 메일동을 이용하시려면, 야후!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http://docs.yahoo.com/info/terms/>